

소리가 궁금하지 않나요? 안양자원봉사센터 사진을 보며..

복지영상 이성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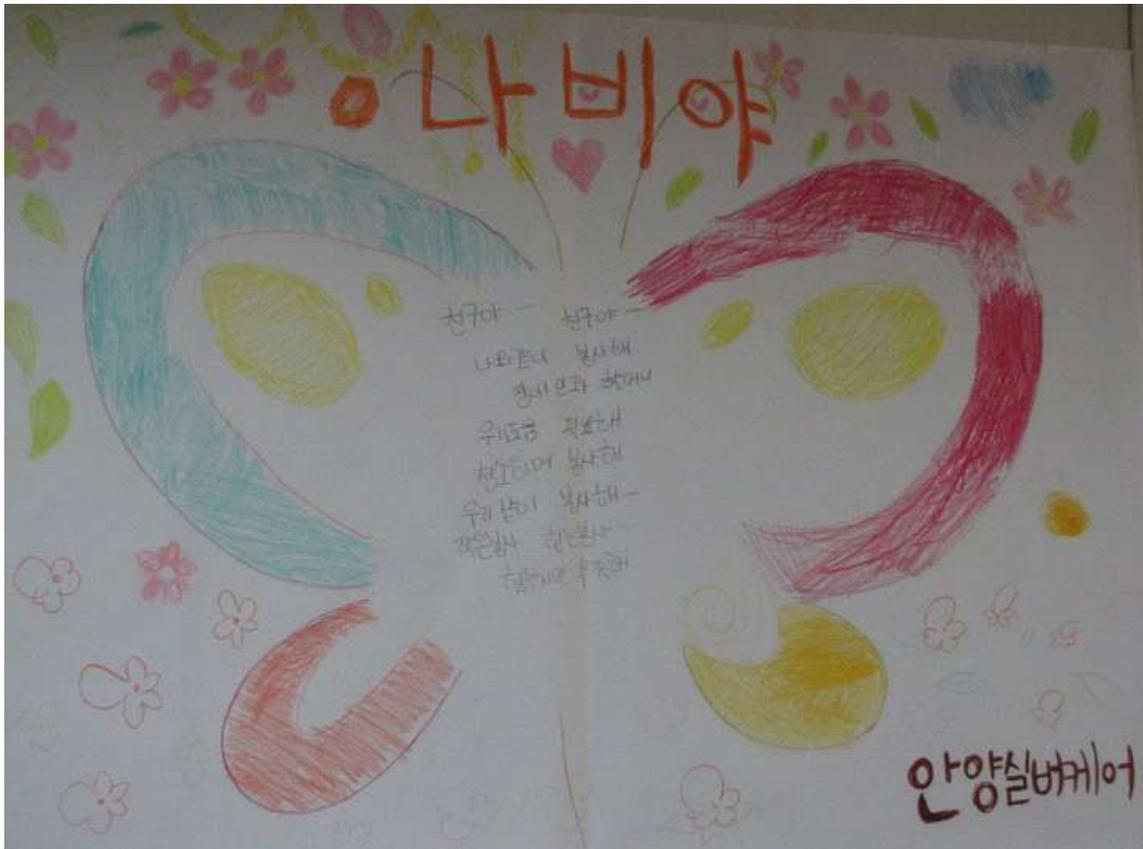
feelca@hanmail.net

자원봉사 센터의 모델이 되어 온

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10년치 사진을 보면서 영상작업을 했습니다.

사진을 보고, 골라내는 것만 일주일 자원봉사의 모든 종류를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는 활동을 보고, 비디오로 기록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.

그 중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비디오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



노래 소리가 들리나요?

친구야~ 친구야~ 나와 같이 봉사해 / 장애인과 할머니 우리도움 필요해
청소하며 봉사해 우리 같이 봉사해 / 작은 봉사 힘든봉사 힘들지만 뿌듯해

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'틴볼스쿨' 에서

자원봉사에 대한 재미난 수업의 결과물로

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노가바(노래가사바꾸기) 입니다.

아마 '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'의 음률에

자원봉사 관련 가사를 넣은 것 같습니다.

숫자송에 자원봉사의 의미를 넣었는데, 가사가 참 좋습니다.

발표하는 청소년들은 아마 반주음악에 맞춰 자기들이 지은 자원봉사 숫자송을 부르면서 울동을 했겠죠.



“세상은 크고 사람은 많고
알수 있나요 나의 존재를
외쳐보아요 날좀 봐줘요
날 부르네요 여기 왔어요
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
보석보다도 소중한 사람
<후렴>
사랑해 소중한애 아껴줄래
너와 나는 완소한 사람들
우리 이제 사랑합시다.

(어떤 노래를 했는지 알수가 없네요.. 이런)

사진으로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,
어떤 모습은 비디오로 기록해야
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,
목적을 이루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
프로그램마다 어떤 매체로 기록을 남겨야 좋을지
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

사진으로 할 지,
소리로 녹음할 지,
비디오로 기록할 지,
그림으로 그려야 할지..

상황에 맞는 디지털 저작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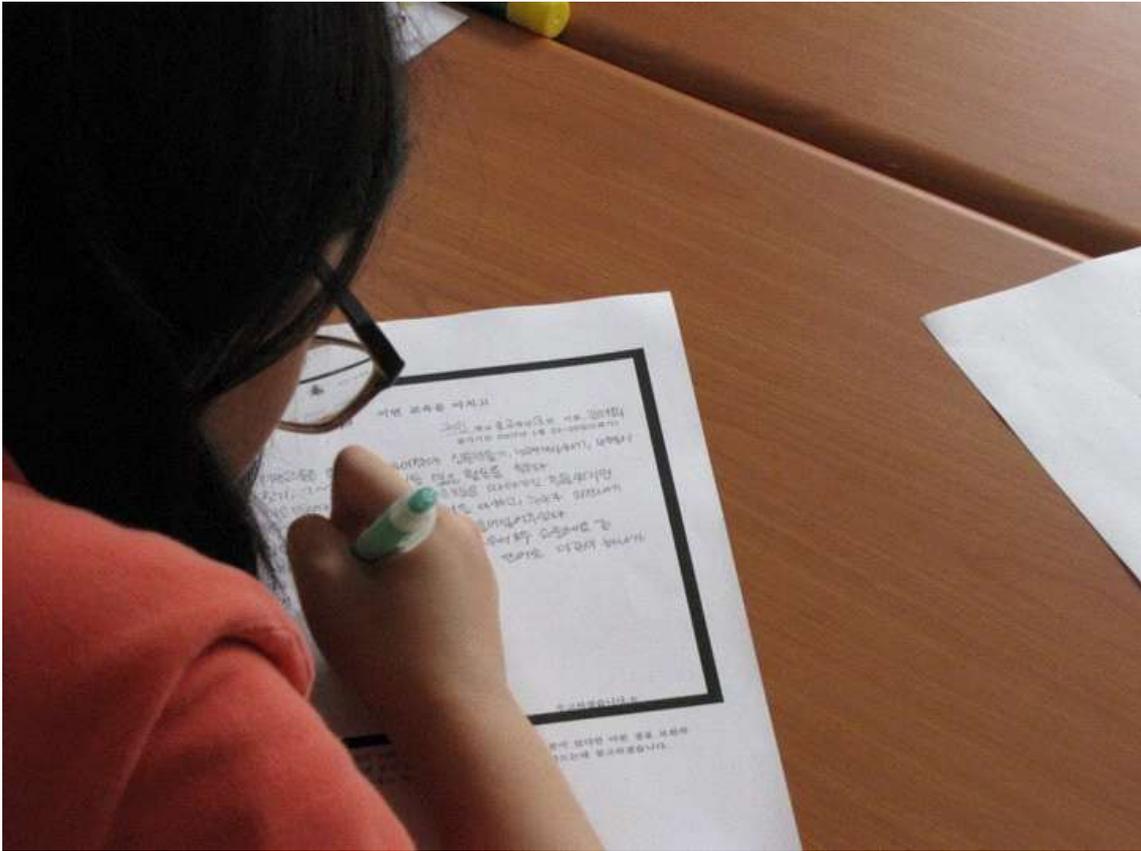


작곡 : 안익태

작사 : 4조 태극기 휘날리며

왕따없는 우리나라
차별은 싫어요
하느님이 주신 인권
서로 지킵시다.
인권은 우리만의
권~리라네
우리 서로 사랑하며
인권 존중해요

(강의를 진행하는 분은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시작을 안내하는 아줌마 선생님이랍니다.)



프로그램 후 설문

프로그램을 마친 후 소감을 적을 때
글로 적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면
청소년들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인터뷰가 가능해 집니다.

방금 어떤 글을 쓰신 건가요?
왜 그렇게 생각했나요?
소감 내용을 한 번 낭독해 주실래요?

잘 기록된 사진, 비디오, 소리는
앞으로의 참가자들에게,
교육 진행을 처음 하게 될 선생님들에게,
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나, 개인에게
그 필요성과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* 사진자료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진입니다.
10년 전부터 기록의 소중함을 알고 꾸준히 기록해온 센터의 방대한 자료에 놀랐습니다.
사진의 구도나, 잘 찍은 여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
프로그램에서 '소리, 현장성'의 기록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적합한 자료라 선택한 것입니다.

<http://cafe.daum.net/anyangvol> 안양자원봉사센터의 카페에 가면 활발한 자원봉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.